

'23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 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3- 11	11.15	회의실	7/13	4	1	12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필오·곽선희·김영신·송경용·오광호·이숙희·조경완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윤근수(경영인프라본부장), 이승철(콘텐츠본부장), 이계상(시사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차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6	5	0	0	11	1	12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2	0	0	12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시사 용광로>의 빨간 글씨 판이 정중앙으로 확대될 때 시각적으로 불편했음	시사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제작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11.22)	'23.11.
"	<시사 용광로>에서 인권상 수상자들이 소감을 말할 때 곧바로 자막이 뒀으면 통역과 함께 효과적일 것 같았는데 아쉬움	시사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제작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11.22)	"
"	빈대 발견 관련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길 바람	<뉴스투데이> 닷새 전에도 찜질방에서 빈대 확인 작업 했었다(11.30), <뉴스데스크> 광주에서도 빈대 첫 확인(11.21), <본방을 보자> 시내버스 빈대 방역 현장(11.29) 등 방송 조치	"
"	우리 농산물의 제대로 된 가치를 알려주는 언론의 노력 필요	<뉴스데스크> 열악한 농가들..대책 마련 시급(11.16), <뉴스데스크> 김치, 산업으로도 성공하려면((11.22) 등 방송 조치	"
"	<시사 용광로> 방청객의 역할이 없어 아쉬움	시사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제작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11.22)	"
"	고령 운전자나 노인의 교통안전 등 계속해서 관심을 두길 바람	<뉴스투데이> 경로당 인도까지 불법주차 점령(12.4), <뉴스데스크> 고령 운전자가 위험하다(12.11) 등 방송 조치	"
교양	전라도의 맛과 멋을 보여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유치 기여 바람	<본방을 보자> 최고의 김치를 찾아라! 전남 명품 김치(11.23), 연말엔 전통주(11.30), <테마기행 길> 주간편성 등 방송 조치	"
"	<본방을 보자> 지역의 추천 명소 꾸	<뉴스데스크> '광주 여행자의 집'을	"

	준히 정보 제공해주길 바람	아십니까?(12.9), <뉴스투데이> 사 직~양림~ACC~동명동서 광주빛축 제(12.7) 등 방송 조치	
"	<본방을 보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서 진행하는 ‘오감 만족 페스티벌’, ‘행성공명’ 두 전시를 별도 코너로 소 개 아쉬움	편성 책임자 및 담당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11.22)	"
"	<본방을 보자> 월간 본술랭가이드에 서 메뉴 하나하나를 너무 디테일하게 소개해주어 지루했고, 특정 식당 홍보 느낌이 들어 아쉬움	편성 책임자 및 담당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11.22)	"
"	<2023 대한민국 김치대전> 광주 대표 양궁 선수 참여, 관심과 홍보 바람	생방송 <2023 대한민국 김치대전> 안산 양궁 선수 인터뷰 진행 (11.22), , <본방을 보자> 2023 대 한민국 김치대전 이모저모(11.30), 유튜브 2023 대한민국 김치대전 하 이라이트 등 방송 조치	
기타 (방송통 신심의위 원회)	FM <정오의 희망곡>에서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지정·고시된 가요 <한 번 더 OK?>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 함	편성 책임자 및 담당PD, 심의 담당 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11.22), 방송심의교육 시 행(12.6)	"
총 건수		1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시사 용광로>의 빨간 글씨 판이 정중앙으로 확대될 때 시각적으로 불편했음(곽선희)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음	○		
"	<시사 용광로>에서 인권상 수상자들이 소감을 말할 때 곧바로 자막이 떴으면 통역과 함께 효과적일 것 같았는데 아쉬움(곽선희, 오광호)	동시통역 아닌 후시통역을 채택해 어려움이 있었고 생방송이다 보니 한계가 있었으나 다음번에는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겠음	○		
"	빈대 발견 관련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길 바람(김영신)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보도하겠음	○		
"	우리 농산물의 제대로 된 가치를 알려주는 언론의 노력 필요(송경용)	깜깜한 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연속 기획보도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음	○		
"	<시사 용광로> 방청객의 역할이 없어 아쉬움(오광호)	생방송의 한계로 인한 것이긴 하나 향후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음	○		
"	고령 운전자나 노인의 교통안전 등 계속해서 관심을 두길 바람(이숙희)	교통 관련 외에도 고령화 시대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노인 문제를 살펴보겠음	○		
교양	전라도의 맛과 멋을 보여주는	<테마기행 길>을 주간 편성하고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유치 기여 바람(강필오)	있으며, 보도나 프로그램에서도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겠음			
"	<본방을 보자> 지역의 추천 명소 꾸준히 정보 제공해주길 바람(오광호)	음식, 문화예술, 관광 등 관련 명소를 발굴하고 소개하겠음	○		
"	<본방을 보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하는 ‘오감 만족 페스티벌’, ‘행성공명’ 두 전시를 별도 코너로 소개 아쉬움(오광호)	제작 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자 다각도로 검토하겠음	○		
"	<본방을 보자> 월간 본술랭가이드에서 메뉴 하나하나를 너무 디테일하게 소개해주어 지루했고, 특정 식당 홍보 느낌이 들어 아쉬움(오광호)	모니터링을 보다 더 철저히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하겠음	○		
"	<2023 대한민국 김치대전> 광주 대표 양궁 선수 참여, 관심과 홍보 바람(강필오)	방송 시 안산 선수 인터뷰 등을 진행할 예정임	○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FM <정오의 희망곡>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된 가요 <한 번 더 OK?>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함	제작 시 유의하고 심의를 더 철저히 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3년 11월)

일 시	2023. 11. 15. 수. 오후 5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필오, 곽선희, 김영신, 송경용, 오광호, 이숙희, 조경완(7명)	
	회사	김낙곤 사장, 윤근수 경영인프라본부장,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조경완 위원장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김낙곤 사장 : -11월에는 1년여간 준비해온 ‘2023 대한민국 김치대전’이 민주화의 성지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남도김치의 맛을 알리고,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를 보여줄 것이다. 만여 포기의 김치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한다.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이 뜻깊은 행사에 함께해주시면 고맙겠다.
-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 -소통 프로젝트 특별기획으로 지자체의 공약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11월 8일 장성군, 11월 13일 북구, 11월 20일 남구, 11월 29일 동구 순으로 녹화를 하고 있다. Rapa 제작지원 프로그램인 <한민족의 소리> 1, 2부가 MBC 전국 방송되며, 광주MBC에서는 11월 19일과 26일에 방송한다. 많은 시청을 바란다. 유튜브 리얼뮤직은 구독자 10만을 돌파했다. 현재 10만이 넘는 채널은 4개인데, 광주MBC, 얼씨구TV, 트로트맛집, 리얼뮤직 등이다.
-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지형 변화를 보도하고 있다. 신당 창당 분위기나 민주당 상황 등을 통해 지역 정가의 움직임을 취재하고 있다. 이준석, 양향자 등 신당 참여 정치인의 동향을 파악해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총선 후보들의 출판기념회는 형평성 등을 고려해 취재하지 않고 있다. 껌껌한 농업의 미래 기획보도로 청년 창업농의 고충을 살펴보고 있다. 암울한 국내 농업의 현실과 소규모 농가들의 어려움을 집중 조명하고, 생명산업인 농업이 발전하도록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취재하고 있다. 또한 농촌에서 다시 젊은 농업인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상황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광주, 목포, 여수 공동으로 구독형 뉴스 제공 ‘뉴스레터’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년 특집 여론 조사를 준비 중이다. 광주MBC 뉴스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는데, 독자적인 콘텐츠 확보와 다채로운 유통으로 구독자 증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올해 말까지 뉴스텐바이를 운영한 이후 내년에는 어떻게 확대할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 조경완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다. 강필오 위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 강필오 위원 : -11월 22일 5.18민주광장에서 특별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23 대한민국 김치대전>이 있다. 국악 신동 김태연, 송가인의 홍보로 더욱 관심이 많다. 1,122명의 참가자가 김치 담그기, 종가 김치 전시, 남도 김치 명인 열전, 고향 사랑 지역 특산품 퍼레이드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기대된다. 매년 정례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광주를 대표하는 양궁 선수가 참여할 예정이니 더욱 많은 관심과 홍보 바란다.
-10월 18일 <본방을 보자>에서 광주의 자랑이자 16년째 육상 국가대표 김국영 선수와의 영상 인터뷰가 있었다. 37년 만에 아시안게임 메달을 획득한 단거리 선수인 김국영 선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광의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다. 김국영 선수 개인적으로 좋은 일에 대한 인터뷰까지 이어졌고 새로운 사실까지 알 수 있어서 더욱 인상 깊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기념행사와 김대중 정신을

언급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시의적절하게 영상으로 남아있는 대통령의 말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줘서 좋았다.

-10월 27일 <테마기행 길>에서는 가을 감성 충전소 담양이라는 주제로 최주봉 씨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문화, 예술, 먹거리, 마실 거리, 체험까지 내용도 풍부하고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채워주셔서 좋았다. 고생해 주시는 작가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다. 전라도의 맛과 멋을 보여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다.

- 객선희 부위원장 : -11월2일 <시사 용광로>에서는 총선 체제 전환에 속도 내는 정치권을 주제로 했다. 국민의 힘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영입으로 언론의 관심과 이슈로 변환의 이미지 쇄신과 시각 전환은 성공했지만, 정치 경력이 없는 혁신위원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염려스럽다. 김재원 의원 징계 철회는 5.18 헌법전문 수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요한 위원장 행보의 아이러니라 하겠다. 메가시티 총선용인 김포 서울 편입은 주목받는 이슈가 되겠지만 인구 절반 이상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 저해와 수도권 집중 가속화는 지방소멸의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하겠다. 민주당 또한 공천기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총선거획단 구성과 민주당 통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통 큰 용단이 필요하며, 친 명대 비명 간의 대결 구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에 통합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내년 총선은 현 정부의 중간평가인 만큼 양당의 유능한 인재 영입으로 혁신 경쟁 필요할 것 같다. <시사용광로>의 빨간 글씨 판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 있을 때는 거부감 없었는데 정중앙으로 확대될 때 시각적으로 불편하였다.

-힌츠포터국제보도상의 의미 편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보도상이어서 생소했지만 <시사용광로>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 이번 대상은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러시아의 바흐무트 전쟁 참사를 취재하여 세계에 알리는 기자분들에게 드렸다. 취재 시 세 분의 기자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다시 이어받은 기자들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네 분의 용기 있는 기자정신에 감동이 되었다. 역사 현장을 누빈 기자들의 헌신은 5.18 당시 상황을 외부와 차단된 광주 5.18현장을 알리는 상황과도 연계된 것 같다. 인권상 수상자들이 소감을 말할 때 곧바로 자막이 떴으면 통역과 함께 효과적일 것 같았는데 아쉬웠다. 탄압에 굴하지 않는 언론은 취재 현장에서 발로 뛸 수 있어야 하는데, 국제보도 면에서 대한민국 기자들은 감각이 뛰어나지만, 여권법이나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라 밖에서의 취재와 해외보도 제한은, 합리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현장의 사람이 중심이 된 취재, 진실과 참상 알리는 것이 기자정신인 만큼 가짜뉴스 논쟁이나 관점이나 입장에 따른 취재는 문제점 많다고 하겠다. 한국의 언론자유 치수가 아시아권에서 높은 나라에서 하락에 따른 고민과 노력, 관심 필요한 것 같다. 대상 이름인 “기로에 선 세계상”은 5.18 당시 다큐의 제목인 “기로에 선 한국”이 5.18 광주 상황을 다루었기에 힌츠포터의 사상과 기자정신을 기리고자 제목을 선정하였다 한다. 기자들의 관심으로 전쟁 종식과 세계인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제 보도상인 만큼 미안마 등 민주적 인권이 파괴된 현장의 호소에 귀 기울이는 언론인의 역할과 5.18 광주는 민주 평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세계인에 손을 내밀어야할 것 같다. “세상이 악으로 물들 때 영상기자는 미래를 쓴다”라는 힌츠포터 국제보도상의 메인 슬로건을 새겨보았다.

- 김영신 위원 :-<본방을 보자>는 지역 현안 뉴스 및 생활정보 등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쉽게 알려주는 생방송 라이브 쇼다. 평소 뉴스를 어렵거나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시청자들도 딱딱한 분위기의 뉴스와 달리 편안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어 매우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소 애청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11월 23일 방송에서는 방송 시작에 앞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설명해주면서 성과도 알려주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전국에서 전남의 기부금 액수가 가장 많다는 소식에 기분이 좋았다. 또한 소식을 전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소개해 줘서 유익했다. 뉴스 소식으로는, 광주와 전남에 빈대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웠다. 광주, 전남에서 빈대가 발견되었다면

바로 시민들에게 알려서 개인위생에 철저히 하고 빈대박멸에 주의할 것을 지자체 및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하는데, 빈대 발견 이후 일주일 동안이나 내부적으로만 쉬쉬하였던 것이 안타까웠다. 지금이라도 소식을 알려주어 시민 개인적으로도 빈대박멸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어서 좋았다.

-특별기획으로는 <한민족의 소리, 더 넥스트 레벨> 출연자 중 소리꾼 신유진 님을 집중 소개해주어서 좋았다. 신유진 님은 최근 조선힙스터라는 별명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날치 밴드의 메인보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4년간의 밴드 활동을 마치고 개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광주 MBC에서 기획한 <한민족의 소리, 더 넥스트 레벨>에 출연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민족의 소리, 더 넥스트 레벨>도 평소 국악은 어렵다, 재미없다는 인식을 깨고 국악을 대중에게 친숙하게 소개해준 프로그램이어서 좋았다.

- 송경용 위원 : -11월 9일 “과일 맛 쉽게 확인... 새 품질표시 방법 도입” 보도 의견이다. 과일을 산 뒤 기대하는 맛이 아니어서 실망한 경험이 있다. 맛보다는 외관을 기본으로 등급 분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당도와 산소 등 맛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품질 정보 표시가 도입된다. 굴의 당도는 달콤1~달콤4까지, 산도는 약함, 보통, 강함, 단맛과 신맛의 비율도 네 구간으로 표시해서 알려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주고도 맛있는 굴을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무척이나 반가운 도입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사과와 참외, 복숭아, 양파에도 도입됐으면 좋겠다.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늘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긴장감 속에서 생체 시계를 수능 시간표에 맞추느라 애를 쓰고 있다. 이제 남은 일은 수능 당일 최상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한 컨디션 관리다. 때문에 조바심을 내서 밤늦게까지 학습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오히려 취침 시각을 밤 11시 전후로 평소보다 조금 앞당겨 모든 생체 리듬을 철저히 수능 시간표에 맞추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진학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한 학생이 12년 동안 노력한 결과를 시험 한 번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생각보다 이 시험이 끝나고 보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수험생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러니 긴장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아 꼭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11월 10일 “매입 쌀 방출 안하겠다..농민 걱정은 여전” 보도 의견이다. 지난 10월 초 쌀 80kg 가격은 21만 7천 552원, 한 달 만에 20만 천 3백 83원까지 떨어졌다. 산지 쌀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매입한 쌀을 방출하지 않고 공공비축미 12만 톤을 정부가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또 정부가 가진 양곡 40만 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만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평소보다 빨리 쌀값 하락 대책을 발표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10아르당 논벼 생산비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1kg에 5만 1천984원이던 비료비는 1년 만에 71.4% 증가했고, 농약과 인건비 등이 모두 올랐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책정하니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생산할 때 드는 비료비만 1년 사이에 71.4% 상승했는데 쌀값은 계속 하락하는데 우리가 우리 농산물의 제대로 된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 농산물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 오광호 위원 : -11월 15일 <본방을 보자>에서 프로그램 도입부에 전라남도 추천 가을 산책 명소로 여수 가사리 생태공원, 영암 기찬뒹길, 목포 고하도 해상 데크길, 해남 달마고도를 소개해주었는데, 시기에 맞춰 전라남도 근교 여행지를 간단히 소개해주어 좋았다. 지역별로 메모해두었다가 주말에 나들이 다녀오기 좋을 것 같아 꾸준히 한두 곳씩이라도 소개해주면 좋겠다. 뉴스본방 코너에서는 ‘광주시 복합쇼핑몰’ 관련 진행 상황을 각각 쇼핑몰 별로 설명해주었는데, 한 번에 정리해서 설명해주니 많은 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지역 상인들이 상권몰락을 우려하는 모습까지 같이 다뤄주며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함께 보여준 것 같아 좋았다. 다음 코너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오감 만족 페스티벌을 소개해주었는데, 예술과 기술의 만남을 주제로 다양한 퍼포먼스, 전시, 워크숍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축제일 듯 보였다. 다음으로 ‘행성공명’이라는 또

다른 전시가 소개되었는데, 마찬가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되는 전시인데 굳이 두 전시를 다른 코너로 소개하는 점이 조금 아쉬웠다. 두 전시를 각각 방송 날짜를 다르게 해서 소개하거나 같은 코너 속에서 한 번에 소개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코너로 월간 본술랭가이드로 갈비를 주제로 두 가지 식당을 소개해주었는데, 메뉴 하나하나를 너무 디테일하게 소개해주어 지루함을 느꼈고, 특정 식당을 홍보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다.

-<시사 용광로> 기로에 선 세계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의 의미를 시청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이란 세계 곳곳의 전쟁 속에서 국가폭력과 인권유린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의 참상과 진실들에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에 알리는 분들을 찾아 그들이 전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만든 상이다. 올해 수상자들을 방청석에 초대하여 수상작과 관련된 현장의 영상들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좋았다. 다만 외국인 수상자분들과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통역이 있긴 했지만 수상자의 답변이 길어, 화면에 자막이 함께 표현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아쉬움이 들었다. 세계의 분쟁과 갈등 속에서 언론의 역할은 가장 현장 가까이에서 사람들을 만나 진실과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며,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제대로 듣고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패널 뒤로 광주시민들이 방청객으로 여럿 앉아있었는데 그들의 역할이 없어 아쉬웠다.

- 이숙희 위원 : -2023년 11월 23일 뉴스 고령자 운전자 사고에 관한 의견이다. 최근 고령자들의 대형 사망사고가 전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자율적 면허반납 대안은 없는 것일까? 현재 전남도에서는 100원 택시를 운행 중이다. 100원 택시와 같은 혜택이 있다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면허 자진 반납 시 무엇인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고령자들은 면허 반납하는 자발적 참여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면허반납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과 고령자 본인에게도 장점이 있을 것이다. 고령자의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체증 해소, 차량 비용 절감, 주차 해결, 기후환경에 일부 해결, 건강관리 및 건강 유지 비용 절감, 인지장애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규제 강화를 한다면 자동 멈춤 장치나 고속 도로 진입 금지, 판단력 저하에 따른 강한 규제 시행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 조경완 위원장 : -사측에서 제시해준 기타 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계도 사항이 있다. 광주MBC-FM <정오의 희망곡>이 선정성·불건전 교제 조장·유해업소 출입 조장 등의 사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된 <한 번 더 OK?>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청소년보호시간대는 어떻게 되나?
- 윤근수 경영인프라본부장 : -평일은 오전 7시~9시와 오후 1시~10시,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과 방학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 조경완 위원장 : -방송 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여부가 중요하겠다. 제작진과 심의 담당 부서에서 유의해줄 것 바란다. 이상으로 11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이다. 올해의 마지막 회의인데 많은 참석을 바란다.

끝.